

개발과 이슈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519-14

국가별 SDGs 이행전략 및 프로그램-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 SDGs 이행 실적 및 이행 주체
3.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SDGs 이행 현황
4. 우리나라 SDGs 이행 주체 및 향후 이행 방향
5. 결론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 이행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립이라는 궁극적인 의미와 함께 이것을 통해 각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에 걸친 점검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은 SDGs 실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본고는 2018년 기준, SDGs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표단 설립을 통해 다양한 이행 주체를 SDGs 이행 채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도하되 그 구성과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SDGs의 실체적 이행 주체와 더불어 각 정부 부서를 조정하고 SDGs 관련 이해당사자를 아우르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범정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원 조수행기관의 SDGs 이행 역할을 보고자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역할도 살펴보았으나 Sida는 SDGs 이행을 위한 Sida만의 고유한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DA연구·정보센터 홍은경

1. 서론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 선언하였다. 여기서 채택된 아젠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명명되었는데, SDGs는 17개 목표(goal),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¹⁾되어 있다. SDGs 핵심요소로서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P를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 환경, 사회라는 3대축 간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노력도 시작되었는데, 2016년부터 UN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하 ECOSOC) 주관 각료급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을 개최하고, 4년 주기로는 총회 주관 정상급 HLPF를 개최함으로써 SDG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HLPF는 SDGs의 이행 결과에 대한 검토보다는 향후에 있을 HLPF에 대한 후속 조치와 검토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윤유리, 2017). UN 회원국은 HLPF를 통해 각국의 자발적 국별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22개의 국가²⁾, 2017년에는 43개의 국가³⁾가 이미 VNR을 제출하였으며 2018년 7월에 열리게 될 HLPF에는 47개의 국가⁴⁾가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2016년 이후부터 112개 국가(2018년 제출 예정 국가 포함)가 VNR의 작성 및 제출에 참여하고 있는데 VNR을 통해 파악되는 국가별 SDGs 이행은 수준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DGs 이행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립이라는 궁극적인 의미와 함께 이것을 통해 각국의 경

1)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반면, SDGs는 인간(People, SDG 1~5), 지구(Planet 6, 12~15), 번영(Prosperity, 7~11), 평화(Peace, 16), 파트너십(Partnership, 17) 등 5P를 중심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 노르웨이, 대한민국, 독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베네수엘라, 사모아, 스위스, 시에라리온, 에스토니아, 우간다, 이집트, 조지아, 중국, 콜롬비아, 터키, 토고,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3)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네팔, 덴마크,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나코,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냉,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라질,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체코, 칠레, 카타르, 케냐,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4) 그리스, 기니, 나미비아, 니제르,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리, 멕시코, 몰타, 바레인, 바하마, 베냉, 베트남,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이집트, 자메이카, 카보베르데,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 키리바시, 토고,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폴란드, 헝가리, 호주

제, 사회, 환경 등 제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해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별 전략을 세우고,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SDGs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마련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VNR을 제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SDGs 이행 수준은 목표 대비 많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SDGs 이행 현황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행 수립 계획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SDGs 이행 계획이 국가 정책에 내재화 및 주류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및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 2017년 기준, SDGs 이행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스웨덴의 SDGs 이행 전략 및 정책 방향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아울러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이하 Sida)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 및 역할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의 SDGs의 이행을 위한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스웨덴 SDGs 이행 실적 및 이행 주체

2.1. 스웨덴의 SDGs 이행 실적

2016년 7월,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는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공동으로 총 14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SDG 지표와 대시보드(SDG Index & Dashboards)를 발간하였다. 2016년 발간 이후⁵⁾ 2017년에 한 차례 상위 버전이 발표되었는데 IAEG(Inter-Agency and Expert Advisory Group)-SDGs에서 제안한 230개 지표⁶⁾ 가운데 2016년에는 77개 지표를, 2017년에는 99개 지표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들을 비교, 점수와 순위를 부여하였다.

5) SDG Index&Dashboards는 2015년에 첫 발간되었는데 당시 34개 나라만을 두고 분석하였음.

6) 유엔통계위원회(UNSC)와 IAEG는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을 하였는데 2016.3월 UNSC는 IAEG SDG 연구그룹이 제출한 230개 예비 지표를 승인하였다.

[표 1] SDG 인덱스 순위

2016년 SDG 인덱스			2017년 SDG 인덱스		
순위	국가	SDG 인덱스 점수	순위	국가	SDG 인덱스 점수
1	스웨덴	84.5	1	스웨덴	85.6
2	덴마크	83.9	2	덴마크	84.2
3	노르웨이	82.3	3	핀란드	84
4	핀란드	81	4	노르웨이	83.9
5	스위스	80.9	5	체코	81.9
6	독일	80.5	6	독일	81.7
7	오스트리아	79.1	7	오스트리아	81.4
8	네덜란드	78.9	8	스위스	81.2
...
27	한국	72.7	31	한국	75.5

출처: Sachs et al. (2016, 2017)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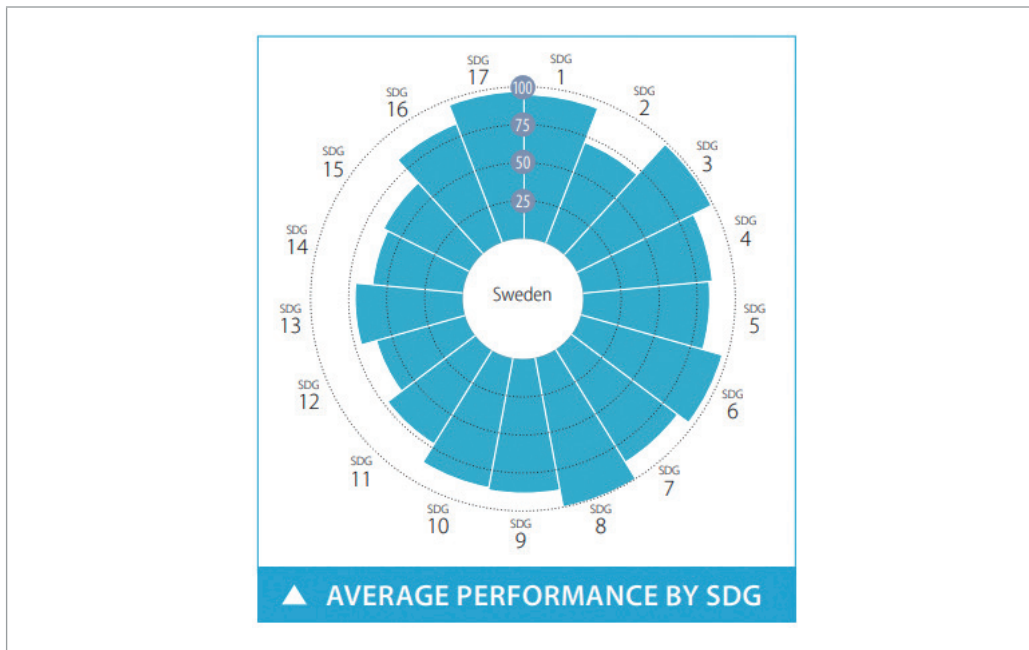
[그림 1] 스웨덴의 SDGs 성적



출처: Sachs et al. (2017)

상기 <표 1>은 2016년과 2017년의 SDG 인덱스 점수를 보여준다. Sachs et al. (2017)은 2017년 인덱스 점수의 경우 2016년 인덱스에서 방법론과 데이터를 보완하여 발표된 것이므로 각각의 순위와 점수 변동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상기 보이는 바와 같이 스웨덴은 2016년, 2017년 두 해의 인덱스 점수에서 각각 84.5점, 85.6점을 받아 2016년에는 149개 국가 중 1위, 2017년에는 15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정상적의 자리에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는 지역평균 인덱스 점수인 77.7점(상기 <그림 1> 참조)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스웨덴 뒤로는 순위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세 나라들이 2016년, 2017년에 걸쳐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2016-2017년 기준으로 SDGs 이행에 있어서 UN SDGs 2030 목표를 이미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⁷⁾

[그림 2] 스웨덴 SDG 목표별 평균 달성 정도



출처: Sachs et al. (2017)

7) 한국은 2016년에는 72.7점으로 순위는 149개 국가 중 27위, 2017년에는 157개국 중 31위를 차지하였다 (<표 1> 참조).

[그림 3] 스웨덴 SDG 일람표



출처: Sachs et al. (2017)

상기 <그림 2>는 스웨덴 17개 목표에 대한 SDG 달성 성과를 퍼센트로, <그림 3>은 스웨덴 17개 목표에 대한 SDG 성과를 네 가지 색으로 나타낸 일람표(dashboard-대쉬보드)이다. 목표 달성 정도는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녹색은 국가가 SDG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경로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 SDG 달성과 일치하는 임계값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현재 심각한 도전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⁸⁾. 스웨덴의 경우, 목표 12 소비와 생산, 목표 13 기후 변화와 목표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경우가 17개의 전체 목표 중 도전 목표임을 알 수 있으며, 목표 1, 3, 4, 7, 9, 10, 17은 상대적으로 목표에 근접하거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각 지표별 일람표 평가는 <부록> 참조).

[표 2] 스웨덴의 사회 및 환경건전성 지표

지표 종류	전체 순위	점수 혹은 비중	지역평균
SDG 인덱스	1(157개국 중)	84.5/100	77.7/100
인간개발 지수, 2016 Human Development Index (2016)	13(157개국 중)	91.3	88.7

8) 2016년 대쉬보드는 녹색, 노란색, 빨간색 등의 3가지 색으로 표현되고 있음.

주관적 안녕 척도, 2016 Subjective Wellbeing (2016)	7(133개국 중)	74.0	66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2015 GDP per capita, PPP(2015)	12(153개국 중)	US\$ 45,488	US\$ 38,362
국제경쟁력 지수, 2016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17)	6(134개국 중)	79.0	71.4
환경성과 지수, 2016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2016)	3(155개국 중)	90.4	84.5
국제평화 지수, 2016 Global Peace Index(2016)	14(149개국 중)	70.8	67.1

출처: Sachs, J.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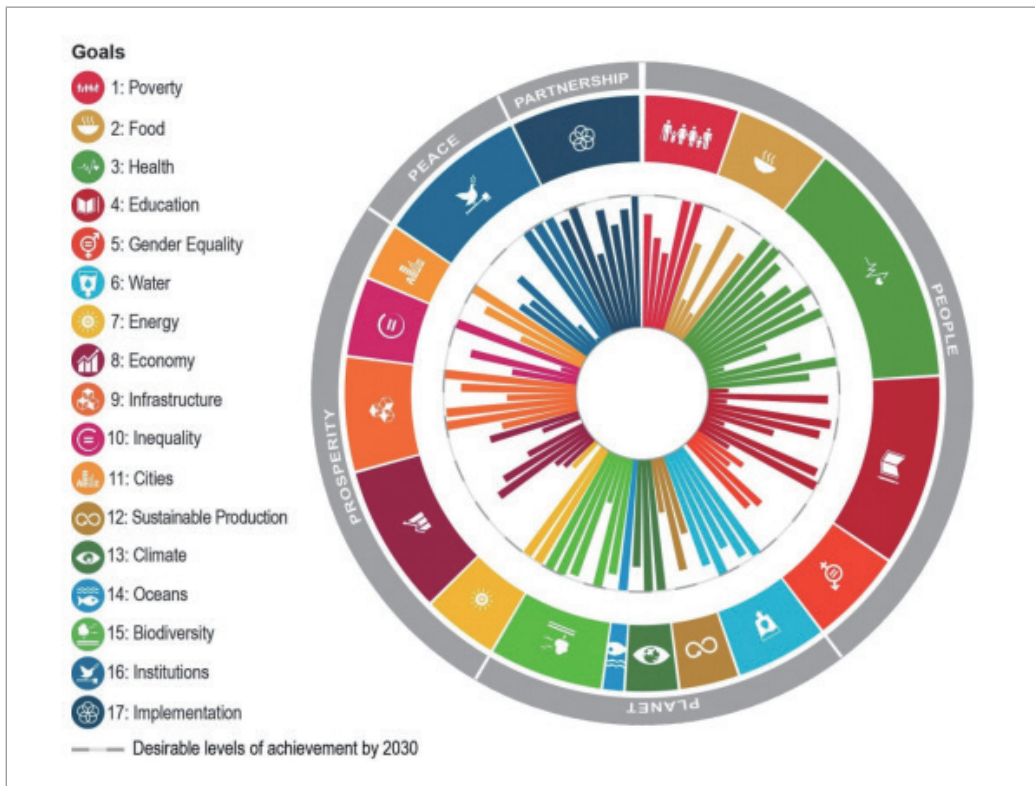
상기 <표 2>는 스웨덴의 사회, 경제 및 환경건전성을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주관적 안녕 척도(Subjective Wellbeing),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PPP),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국제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를 볼 때 SDG 인덱스처럼 최상위 순위에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스웨덴은 상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스웨덴의 SDGs의 이행 및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 2016년 7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보고서가 있는데 OECD는 회원국들의 SDGs 이행을 위한 GPS 역할을 자처하며 이행 초기 여건과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⁹⁾. 2017년 기준 한 차례의 업데이트가 있었으며 169개 세부목표 중 96개 목표를 다루고 있는 129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스웨덴은 2017년 기준으로 27개의 세부목표를 달성한 듯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SDSN의 SDGs 이행성과현황에서 전체 SDGs 점수가 1위인 나라이며 각 17개 목표별 달성 정도를 볼 때 (<그림 2> 참조) 17개 전체 목표별 달성 퍼센트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4>는 몇 개의 세부목표에서는 그 달성을 위한 도전이 존재

9) OECD, 2016.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s targets: A pilot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OECD, Paris: OECD Publishing

함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령 '목표 16 평화'의 경우 아주 짧은 막대그래프들을 볼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 2> 스웨덴의 SDGs 세부 목표별 평균 달성 정도에 의하면 목표 16의 전체 달성 퍼센트는 75%를 상회한다. 이로써 목표별 달성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목표에 있어서 도전사항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스웨덴의 SDGs 세부목표별 현재 목표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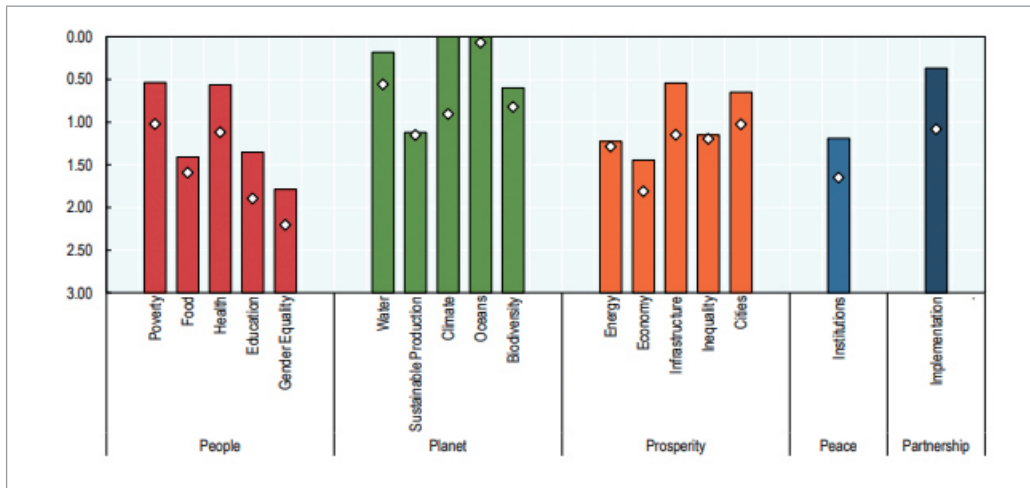


주: 막대차트는 각 세부목표 당 스웨덴의 SDGs 목표 달성 정도를 보여주며 회색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권장 달성수준(desirable levels of achievement by 2030)과의 거리가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도를 보여줌. 타겟들은 목표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목표는 2030 어젠다의 사람, 번영, 지구, 평화, 파트너십의 5P(Peac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 구성요소로 분류되어 있음.

출처: OECD (2017a)

아래의 <그림 5>는 스웨덴의 SDGs 목표별 현재 달성 정도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목표에서 스웨덴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불평등(inequality), 에너지(energy) 목표에서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SDGs 5P 구성요소로 볼 때 지구(Planet) 부분에서 가장 2030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번영(Prosperity)과 사람(People) 부분에서도 비교적 목표치 대비 현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17개 목표 중 성평등(gender equality) 목표가 2030년 목표치 대비 가장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OECD 평균과 비교한 스웨덴의 SDGs 목표별 현재 달성 정도



주: 막대그래프는 스웨덴이 SDGs 각각의 17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보여주는데 0에 가까울수록 2030 목표수준을 달성한 것임. 다이아몬드 도형은 OECD 국가 평균을 나타냄. 각각의 목표(goal) 아래 세부목표들은(target)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짐. 각 나라별로 SDGs 달성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목표 1부터 목표 16까지 ODA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국가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는 ODA와 통계역량강화 관련 ODA 약정은 목표 17에 포함됨.

출처: OECD (2017a)

2.2 스웨덴 SDGs 이행 전략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적합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PCSD)’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로 포함됨

에 따라 지금까지 OECD 주도로 추진되어 온 ‘개발을 위한 정책적합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이 유엔 어젠다로 부상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이미 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여 모든 정책 수립 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을 고려하도록 조치하였고, 스웨덴 의회는 개발을 위한 정책적합성(PCD)이 포함된 글로벌 개발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이하 PGD)을 2003년에 채택한 바 있다. PCD에서 PCSD로 개념을 전환함에 따라, 스웨덴 정부도 모든 정부 부서가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김철희 외, 2017) 스웨덴 국가 정책에 지속가능발전과 SDGs를 주류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스웨덴은 기존 글로벌 개발정책이나 매커니즘에 SDG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SDGs 국내 이행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주OECD대표부, 2016a).

2.3. 스웨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스웨덴 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한 내부 조직 및 설계 구조 및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SDGs 이행에 있어서 원칙은 기존 정책 분야와 정부 각처 간의 정책 통합과 일관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SDGs의 내재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1월 스웨덴 정부는 정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부문 대표와 함께 2030년 의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가행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SDGs를 스웨덴 국가 전략과 같이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웨덴 정부는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국가대표단(National Delegation)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정부 부서와 기관은 관련된 업무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웨덴의 SDGs 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다. 2016년 4월에 스웨덴 정부는 86개의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에 국내 및 국제적인 범위에서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SDGs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또한 어떤 추가적인 장치가 SDGs 달성에 필요할 것인지 평가하여 2016년 8월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모든 부처에서 SDGs와 연계된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정부 부처 각자의 업무가 SDG와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부처의 업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7년 7월 스웨덴 정부는 2030 아젠다 이행보고서를 발표¹⁰⁾하였고 HLPF에 VNR을 제출하였다. 2030 아젠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스웨덴 정부는 2030 아젠다의 모든 목표와 스웨덴

10) Government of Sweden, 2017, "Sweden and the 2030 Agenda — Report to the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7 on Sustainable Development"

상황을 고려한 국가 지표(national indicator) 및 사후관리 시스템(follow-up system)을 개발하고, 이 지표를 토대로 어떠한 가치와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Government of Sweden, 2017).

2018년 6월 18일, 스웨덴 정부는 의제행동계획(Sweden's action plan for the 2030 Agenda)¹¹⁾을 제시하였다. 의제행동계획에는 2018-2020년의 주요 정치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행동 계획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 국가대표단이 제출한 국가행동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다음의 6개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동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6개 분야는 1) 평등과 성평등; 2) 지속가능한 사회; 3)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순환적이며 바이오에 기반한 경제; 4) 지속가능한 기업가들과 함께하는 강력한 기업경영; 5) 건강한 먹이사슬; 6) 지식과 혁신이 있다.¹²⁾

아래 <표 3>은 상기 진술한 스웨덴의 국가 SDGs 이행의 주요 활동 및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스웨덴의 국가 SDG 이행의 주요 활동 및 계획

년도	주요내용
2014-15	외무부는 부처 간 접촉그룹을 주도함. 이 그룹은 제안된 SDGs,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반영될 결과 및 도전과제를 분석
2016	1 월 : 주요 이해 관계자 행사로 정부의 의제가 시작 3 월 : 이행 실천 계획을 준비하는 국가대표단(National Delegation)이 발표 5 월 : 86 개 정부 기관이 의제 2030의 의의를 검토하도록 지시 8 월 : 정부 기관들 보고 6 월 : 대표단 사무국 설립 11 월 : 대표단의 첫 번째 보고서 발표
2017	5 월(6월) : 국가대표단-국가행동계획 작성완료(5월말) 및 발표(6월 1일) 7 월 : HLPF에 VNR을 제출
2019	3 월 : 대표단 위임 종료

출처: Halonen et al. (2017)

11) 2018년 6월 현재 스웨덴 의제 행동계획은 영문으로 발표되지 않음

12)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8/06/the-government-adopts-swedens-action-plan-for-the-2030-agenda/>

스웨덴의 SDGs 이행의 핵심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대표단(National Delegation)’이 있는데, 이는 SDGs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주인 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문화계, 지자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대표단은 SDGs 이행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SDG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 정부부처,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SDGs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SDGs 이행 관련한 스웨덴 기관조직과 거버넌스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¹³⁾

스웨덴 정부

스웨덴 정부는 SDGs 이행에 대해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는데, 스웨덴 정부는 전략, 개발협력, 공공개발 담당 3개 부처를 SDGs 이행방안 마련 선도 부처로 지정하고, 3명의 각료장관(전략개발장관, 국제개발협력장관, 공공행정장관)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SDGs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OECD, 2016b; Halonen et al., 2017). 전략개발장관(Minister for Strategic Affairs and Future Policies)에게 범분야적(cross-sectoral)이고 장기적(long-term)인 시각 반영, 국제개발협력장관(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er)에게 국제적 시각 반영, 공공행정장관(Minister for Public Administration)에게는 국내 시각 반영 및 조정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다. 공공행정장관은 SDGs의 스웨덴 국내 실행에 대한 조율 및 촉진을 담당하며 국제개발협력장관은 글로벌개발을 위한 정책(PGD)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SDGs 국제적 이행에 대한 스웨덴의 기여를 담당한다(OECD, 2017b).

SDGs 관련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각 장관의 담당 영역에 따라 부처별로 준비 및 계획되지만 특히 행정장관(The Minister for Public Administration/Ministry of Finance 산하)과 국제개발협력·기후장관(The Minis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Ministry for Foreign Affairs 산하)은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가진다. 각 부처 직속으로 아젠다를 위한 자문조직이 있는데 이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외교부(Ministry for Foreign Affairs), 환경에너지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해당되며 해당 장관들이 참여한다. 이밖에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SDGs를 위한 부처 간 워킹그룹이 있다. 또한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주OECD대표부, 2016).

13) Government of Sweden (2017)을 요약 정리하였음.

국가대표단이 제출한 스웨덴의 SDGs 목표와 세부목표 충족에 관한 실천계획 제안서를 기본으로 해당 부서는 예산 점검과 함께 이 실천계획이 SDGs 이행에 공헌하게 될지 여부를 살펴볼게 된다. 정부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와 갈등을 규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평등, 이민자들과의 통합, 환경 분야에서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좀 더 넓은 탈세문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있어 향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OECD, 2016b).

또한 국내적인 이행 노력과 별도로 국제적인 SDGs 이행 지원 및 독려를 위해 스웨덴 총리는 독일, 남아공, 브라질 등 9개국¹⁴⁾으로 이루어진 고위급지원그룹(High-Level Support Group)을 결성하여 국제 사회에서 SDGs 이행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스웨덴의 SDGs의 국제적 이행 노력은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데 아래는 스웨덴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이다(Halonen et al., 2017).

- 스웨덴과 피지는 바다를 보호하고 SDG 14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
- 스웨덴은 SDG 8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인 ‘Global Deal for Decent Work and Inclusive Growth’ 이니셔티브 시작
- 스웨덴은 SDG 16.2에 초점을 두고 있는 Global Deal for Decent Work and Inclusive Growth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스웨덴 국회(Riksdag)

스웨덴 국회 내의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와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가 2030 아젠다 전반을 다루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SDGs의 포괄성 면에서 사실상 모든 위원회가 실행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 대표단(The Delegation for the 2030 Agenda)

2016년 3월 스웨덴 정부는 국내외적인 2030 아젠다의 실행을 위해 위원회와 함께 국내 대표단을 임명하였는데 대표단의 목적은 SDGs를 이행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돕는 것이다. 대표단은 1) 2030년 아젠다의 목표와 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 및 평가; 2) 스웨덴

14) 브라질, 콜롬비아, 독일, 라이베리아, 서아프리카, 스웨덴, 탄자니아, 동티모르, 튀니지

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 계획에 대한 제안서 제출; 3)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모범 운영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전파 등의 일을 수행한다.

대표단은 사무국을 가지며, 한 명의 의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 대학, 시민사회, 공공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다. 대표단은 정부 당국, 주의회, 지방정부, 사회적 파트너, 민간섹터, 시민사회, 연구단체와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여 SDGs와 17개의 목표를 정하는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국제적인 관계 주체들 사이의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담당한다. SDGs 어젠다 관련한 대표단의 업무와 정부의 업무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대표단 사무국과 외교부 및 재무부 공식장관과의 공식적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Halonen et al., 2017)¹⁵⁾.

2017년 5월 본 대표단은 스웨덴의 SDGs 목표와 세부목표 충족에 관한 실천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대표단은 2019년 3월 11일에 공식적으로 해산될 예정이다.¹⁶⁾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과학협의회(The Scientific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년 7월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과학협의회를 설립하였는데 협의회 설립의 목적은 정부와 과학계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기타 중앙정부기관

기타 많은 스웨덴 중앙정부 당국이 2030 아젠다의 직접적인 실행에 대한 업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정부기관들의 업무는 주로 당국의 법령, 지시사항, 전용 지시, 특별 정부 결정, 좌담에 따라 수행된다

주의회와 지방정부

주의회와 지방정부는 지역적 수준에서 국민들의 삶, 삶의 조건 및 건강, 평등한 삶의 기회 등

15) 공식적인 대화 이외에 대표단 사무국과 이들 장관들은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SDGs 이행에 관해 의논하기도 함(Halonen et al., 2017).

16) <https://agenda2030delegationen.se/english/>

필수적인 사회 기능에 대해 관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의회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2030 아젠다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조직과 시민사회조직과의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4. SDGs 이행을 위한 민간 노력¹⁷⁾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웨덴의 리더십 그룹(Swedish Lead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LSD)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20개가 넘는 스웨덴의 대기업들과 연구기관¹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ida에 의해 소집된다. SLSD에 속한 스웨덴의 기업들은 SDGs를 미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지속가능한 계획이자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근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와 부패 등의 위협으로부터 탄력성을 갖는데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하여 그들의 경영에 있어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5. 스웨덴의 SDGs 세부과제 관련 분석

스웨덴의 국내 SDGs 이행과 관련하여 SDGs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행을 위한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2015년에 실시되었다. 2015년에 실시된 이 평가는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외부 평가였는데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이하 SEI)가 이를 수행하였다. SEI는 SDGs 대응에 있어 169개 세부목표가 스웨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였는데 24개의 세부목표에 대해 분석하고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17개의 목표 중에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면서 현재 측정 가능한 자료가 있는, 혹은 최근 정치적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거나 현재 달성 여부를 떠나 국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부 목표를 각 목표 중에서 1-2개를 선정, 총 24개를 선정하였다. 세부 목표의 해석 및 점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경향(trends) 분석으로 최근 몇십 년 동안 목표들이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성취(achievement) 파악으로 세부목표에 가깝게 거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은 정책 노력(policy efforts)으로 목표 달

17) Halonen et al. (2017)을 요약·정리함

18) ABB AB, AstraZeneca AB, Atlas Copco AB, Axel Johnson AB, Elektro AB, Ericsson AB, Företagarna AB, H&M Hennes & Mauritz AB, ICA Gruppen AB, IKEA, Indiska Magasinet AB, Kooperativa Förbundet, Lindex AB, Lönbergs Lila AB, Ratos AB, Sandvik AB, Scania AB,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AB, SPP Liv Fondförsäkring AB, SSAB AB,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 Stockholm Resilience Center (SRC),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 Swedfund AB, Systembolaget AB, Tele2 AB, Teija Company, Tetra Laval Group, Unilever, Volvo Group

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지, 이것이 적합한지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표현되었는데 부정적, 긍정적, 중립 혹은 애매함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부목표에 대해 스케일(국내-해외 이슈 여부), 다면성(여러 분야와 섹터에 걸친 목표), 애매한 표현(정치적 수사가 가미된 표현)등을 점검하여 각 항목별 도전과제를 파악하였다. SEI 세부목표 분석에 따르면 현재 SDGs 목표와 세부목표는 스웨덴에서 매우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스웨덴 국가에 맞는 해석과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표 4>는 상기 설명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24개의 세부목표 중 일부만 예시로 발췌하였다.

[표 4] 스웨덴의 세부목표 분석 및 도전과제 도출방식의 예

세부 목표	경향	성취	정책 노력	세부노력 해석에 있어서 도전과제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산으로 인한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중립	긍정	긍정	다면성: 비감염성 질환의 경향이 스웨덴에서는 다름(의견이 나뉨) 모호한 표현: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음
3.9	2030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공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대폭 줄인다			
	중립	중립	중립	자료가용성: 건강과 환경오염원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가 일반적으로 부족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중립	부정	긍정	모호한 표현: '대폭 늘린다'와 '관련한' 표현이 모호함 자료가용성: '기술'관련한 과거 자료가 없음

출처: Weitz et al. (2015)에서 저자 재작성(부분 발췌)

3. Sida의 SDGs 이행 현황

3.1. Sida의 SDGs 이행 역할

Sida는 스웨덴의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외교부가 수립한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ida는 스웨덴 정부의 국제적 목표(스웨덴과 국제적 목표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위임 받았으나¹⁹⁾ Sida의 SDGs 이행을 위한 독립적이거나 자체적인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정부의 개발협력 수행기관으로서 Sida의 SDGs 이행과 관련한 역할은 다음 세 가지로 파악된다.

1)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할

Sida는 SDGs 관련 내용을 스웨덴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Sida는 SDGs 관련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보조금을 발표했으며, 2030 아젠다 관련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웨덴의 리더십 그룹 소집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웨덴의 리더십 그룹(SLSD)의 소집 역시 SDGs와 관련한 Sida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SLSD는 SDGs가 한창 협상하고 있던 2013년에 결성되었는데 이후 정보공유, 우수사례, 프로젝트 이행, 공공민간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인 환경적 분석 감소 및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 공급사슬과 함께 높은 수준의 직업과 개발의 기회 창출
- 사업체 국가에서 부패와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대응

3) 스웨덴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의 이행

Sida는 스웨덴의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외교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다루고 있는

19) <https://www.sida.se/Svenska/Samarbetsparter/aktorsgrupper/Offentlig-sektor/svenska-myndigheter-for-hallbar-utveckling/>

기관이다. 따라서 Sida의 SDGs 이행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12월 14일에 스웨덴 정부는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스웨덴 개발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스웨덴 정부의 최상위 원조정책문서로서 SDGs와 발맞추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8가지 중점분야를 설정²⁰⁾하여 이 분야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2. 스웨덴의 SDGs 관련 원조 전략 내 Sida의 역할

Sida에는 지금까지 SDGs 관련 독립적이고 단일화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 기준 Sida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외교부 발간 주제별 전략문서는 1) Sida를 통한 스웨덴의 인도적 원조 전략 2017-2020(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2017-2020); 2) 인권, 민주주의, 법치 분야에서의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 2018-2022(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18-2022); 3) 환경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기후 및 해양,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 분야에 대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8-2022(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climate and ocean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2018-2022) 정도로 보인다. 이하 각각의 전략에서 Sida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Sida를 통한 스웨덴의 인도적 원조 전략 2017-2020*²¹⁾

이 전략은 Sida를 통해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을 관리하는 데 있는데, 스웨덴 인도주의 지원의 전반적인 목표는 무력 충돌, 자연 재해 또는 기타 재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생명을 구제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20) 1) 인권·민주주의·법치; 2) 성평등 3) 환경·기후변화·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4) 평화와 안보; 5) 포용적 경제개발; 6) 이주와 개발; 7) 건강형평성 8) 교육과 연구

21) “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2017-2020”을 요약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자문서 참고

https://openaid.se/app/files_mf/1522160868strategyforswedenshumanitarianaidprovidedthroughtheswedish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agencysida20172020.pdf

목적이 있으며 이 전략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적용된다.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웨덴은 물질적 원조와 방호 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하고 지원하는데, 이 전략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ida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니즈에 기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대응
-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증대된 보호 및 인도적 원칙과 국제 인도법에 대한 존중심 증대
-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 증대
- 인도주의 시스템에서의 수용력 및 효과성 증대

환경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기후 및 해양,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 분야에 대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8-2022²²⁾

이 전략은 2030 어젠다 중에서 특별히 SDG 6, SDG 7, SDG 11, SDG 12, SDG 13, SDG 14, SDG 15를 다루기 위하여 작성되었는데 이 전략의 이행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략은 총 6,500백만 스웨덴 크로나 예산 규모로 향후 2018-2022 기간 동안 적용되는데 이 전략 내에서 Sida의 활동은 아래의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 탄력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 기후변화 예방 및 온실가스과 대기오염원 배출의 감소
- 빈곤층의 취약성 감소 및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탄력성 증대
-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 토지 기반한 생태계의 사용, 생물다양성과 종(種), 농업과 산림을 포함한 자연자원, 생태계 서비스 등
- 빈곤층이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증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도시지역 빈곤층에 기본적인 서비스와 주거의 보다 나은 접근성 확보
- 예방적인 화학물질 규제와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22)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climate and ocean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2018-2022"을 요약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자문서 참고

<https://www.government.se/49ae5f/contentassets/8d99ab613d4d476794495d6e4859c3aa/strategy-for-swedens-global-development-cooperation-in-the-areas-of-environmental-sustainability-sustainable-climate-and-oceans-and-sustainable-use-of-natural-resources-20182022.pdf>

지속가능한 바다와 수자원

-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 바다, 해안, 담수생태계의 사용,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 좀 더 깨끗한 물과, 바다, 오염원의 배출 감소와 쓰레기 투기의 감소

인권, 민주주의, 법치분야에서의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 2018-2022²³⁾

이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하고 정당하며 포괄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전략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적용되며, 예산은 Sida와 Folke Bernadotte Academy²⁴⁾의 예산 배당에 따라 할당된다.

이 전략 내에서 Sida의 활동은 아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용적 민주적 사회

-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의 원칙, 절차, 거버넌스 강화
- 민주주의적 참여 및 영향의 증대
- 표현의 자유를 가능케 할 전제조건의 강화

만민에게 동등한 인권

-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및 국내적 절차와 시스템의 강화
- 차별에 취약한 국가에 초점을 둔 인권에 대한 존중심 강화
-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인권 보장, 권한 부여와 성평등을 위한 전제조건 강화

안보, 정의, 책무성

- 부패감소 및 투명성과 책무성의 증대
- 법치의 강화 및 정의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인권옹호 종사자들에 대한 안보 및 안전성 증대

4. 우리나라 SDGs 이행 주체 및 향후 이행 방향

현재 SDGs 이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소통 창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소속된 환경부로 정

23)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18-2022"을 요약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https://openaid.se/app/uploads/2018/03/rk_strategi-for-sveriges-utvecklingssamarbete_eng_webb2.pdf

24) 스웨덴 정부기관으로 분쟁 및 분쟁 후 국가의 평화구축과 국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연구, 방법 개발을 수행.

해져 있고 HLPF에서 VNR을 보고한 부처는 외교부로 되어 있다. 현재 환경부 중심의 SDGs 이행 체계는 사회·경제·환경 등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SDGs를 소화하기에는 총괄 기구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박정호 외, 2017) 이처럼 우리나라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는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확한 주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김석호 외, 2016). 우리나라의 SDGs 이행은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SDGs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SDGs 자체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어 어느 하나의 주체가 독자적인 대응방안을 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김석호 외, 2016).

SDGs 이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의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나(김종호 외, 2017), 별도의 통합적 이행 체계 없이 각 정부 부서들이 기존의 업무분장 하에 SDGs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정호 외(2017)는 고위급 리더의 SDGs 이행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부족하고, 법제도 기반에 있어서 이원화된 법체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로 인해 내용상 중복과 집행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VNR을 제출하여 HLPF에서 이미 SDGs 이행 국별평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SDGs 이행 수준에 있어서는 시작점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SDGs 이행을 위한 체제 정비와 정책 마련, 이를 담당할 이행 주체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부 및 우리나라 SDGs 이해당사자 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범정부적인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SDGs 이행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주OECD대표부, 2016a) SDGs 17개 목표는 목표 간 연계성이 높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필수라고 여겨진다. SDGs라는 포괄적이면서 다층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조정과 집행권을 가진 기관이 필요한데, 따라서 총리실 산하 혹은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인 실무위원회 구성이 요구되며 이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위원회에 머물지 않고 SDGs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SDGs 이행 관련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SDGs 이행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SDGs는 사회·경제·환경의 의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국가정책이 전략적인 이행방안을 다루지 못할 경우, 의제의 포괄성으로 인해 각 이행 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해당 부서 간 책임회피 현상이 일

어날 수 있다(김태균 외, 2016). 또한 SDGs 실천의 핵심 대상인 대중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SDGs 관련 정부부처, 기업, NGOs 등이 함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SDGs를 이행하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한다. 이는 스웨덴의 대표단 구성 및 활동을 통해 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데 스웨덴 SDGs 이행의 핵심은 여러 사회 계층 및 많은 SDGs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표단의 역할에 있다고 하겠다.

스웨덴 이외에도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대통령 및 총리에 의한 조정 체계를 통한 정부주도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시민의 SDGs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 나라에 맞는 SDGs 이행 추진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주OECD 대표부, 2017). 총괄 기능은 국가별로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등 국내 사정에 따라 다양한 부처가 SDGs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의 공식 채널은 환경부로 되어 있는 반면, VNR을 제출한 부서는 외교부라는 점에서 아직 SDGs 이행추진 체계의 명확한 주체가 없다고 보인다(김석호 외, 2016).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SDGs를 주도할 중심 정부기관이 필요하며 그 구성과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웨덴의 국가대표단 같은 SDGs의 실제적 이행 주체가 필요하다.

5. 결론

SDGs 이행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립이라는 궁극적인 의미와 함께 이것을 통해 각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해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별 전략을 세우고,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SDGs 실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본고는 2018년 기준, SDGs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하여 스웨덴의 SDGs 이행 방향과 SDGs 이행 제도 및 다양한 이행 주체, SDGs 이행을 위한 민간의 활동, 그리고 현재 스웨덴의 SDGs 세부목표 이해에 대한 노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회, 국가대표단, 과학협의회,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웨덴 SDGs 이행을 위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해 스웨덴 맥락에서의 평가도 행하여졌는데 이 평가는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외부 평가로 이를 통해 스웨덴에서 여전히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는 세부목표에 대해 국가에 맞는 해석과 재정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SDGs 이행 주체에 대한 정립과 이행 계획의 확립과 함께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평가 같은 SDGs 세부목표의 우리나라 맥락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부 목표 및 지표의 모호한 개념에 대한 이해, 현재 가용될 수 있는 자료의 파악 등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정부는 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전략개발장관, 국제개발협력장관, 공공행정장관에게 실행 책임을 위임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OECD가 PCD에서 PCSD로 개념을 전환하자 모든 정부 부서가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김철희, 2017), 따라서 기존 PGD와 시행계획을 개정하는 작업을 범국가적으로 벌이고 있다(주OECD대표부, 2016b). 스웨덴은 기존 글로벌 개발정책이나 매커니즘에 SDGs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SDGs 국내 이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SDGs를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SDGs 이행에 있어서 별도의 통합적 이행 체계 없이 각 정부 부서들이 SDGs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정부적인 실무위원회를 통해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향 설정과 함께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예에서 보이듯 일관된 정책을 위한 노력과 SDGs 관련 당사자를 통합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이행 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각 정부 부서를 조정하고 SDGs 관련 이해당사자를 아우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범정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Sida는 스웨덴의 외교부가 수립한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SDGs 이행을 위한 Sida만의 고유한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2015년 SDGs 채택이후 스웨덴 정부가 내놓은 Sida를 통한 스웨덴의 인도적 원조 전략 2017-2020; 인권, 민주주의, 법치분야에서의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 2018-2022; 환경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기후 및 해양,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 분야에 대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8-2022에서 Sida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스웨덴의 굵직한 전략 속에서 스웨덴의 원조 이행기관으로서 Sida의 임무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며 단지 Sida의 활동을 통해 어떠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의 활동 기대치만 기술되어 있다. SDGs 이행을 위한 스웨덴의 원조수행기관의 임무 및 이행 활동에 대해서는 현시점에는 공개된 자료(영문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웨덴 원조수행기관 예시를 통한 우리나라 원조수행기관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현시점에서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정부차원에서의 SDGs 이행 역할에 대한 논의는 스웨덴의 대표단 구성 및 활동을 통해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데 스웨덴 대표단 활동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SDGs 관련 사회 각계 이해관계자, 가령 노동조합,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스웨덴은 국가 대표단을 통해 참여자들의 SDGs 이행에 있어 주인 의식이 고취되고 포괄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도하지만 그 구성과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SDGs의 실제적 이행 주체가 필요하다.

[부록] 스웨덴 지표별 달성성과

지표 (단위)	값	평가
SDG 1 빈곤퇴치		
전체인구에서 하루 \$1.90 아래에 있는 인구비율(%)	0.4	녹색
2030년 예상되는 전체인구에서 하루 \$1.90 아래에 있는 인구비율(%)	0.4	녹색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8.8	녹색
SDG 2 (기아해소/ 식량안보)		
영양부족률(Prevalance of Undernourishment) (%)	1.2	녹색
5세 이하 발육부진율(Prevalance of stunting under -5s) (%)	2.6	녹색
5세 이하 영양실조율(Prevalance of wasting under -5s) (%)	0.7	녹색
성인 비만율 (%)	20.5	주황색
곡물 산출량(Cereal yield) (t/ha)	5.6	녹색
지속가능한 질소관리지수(sust. Nitrogen Management Index) (0-1)	0.6	주황색
SDG 3 (보건증진)		
산모 사망률 (10만명당)	4	녹색
신생아 사망률 (천명당)	1.6	녹색
5세 미만 사망률 (천명당)	3	녹색
결핵 발병률 (10만명당)	9.2	녹색
HIV 유병률 (천명당)	0	녹색
30-70세 사이의 연령 표준화된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및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된 사망률 (10만명당)	9.9	녹색
가정용 대기 오염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 (10만명당)	0.4	녹색
교통사고 사망률 (10만명당)	2.8	녹색
출산시 건강기대수명(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년)	72	녹색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15-19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1000명당)	5.7	녹색
숙련된 의료 전문인이 참석한 출산율	n/a	-
영아 예방접종률(Infants who received 2 WHO vaccines) (%)	98	녹색
보편적 건강보장 추적 지표 (Universal Health Coverage Tracer Index) (0-100)	93.6	녹색
주관적 웰빙 (0-10)	7.4	녹색
흡연율 (Daily smokers) (% , 15세 이상)	11.9	녹색
SDG 4 (교육보장/평생학습)		
순초등학교 등록률 (Net primary school enrolment rate) (%)	99.5	녹색
기대 교육 기간(Expected years of schooling) (년)	12.3	녹색

15-24세의 남녀 식자율 (literacy rate) (%)	n/a	-
25-64세 사이 고등교육 인구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	39.8	녹색
PISA 성적 (0-600)	495.8	녹색
SDG 5 (성 평등)		
피임도구수요 불충족률 (기혼 혹은 동거 중인 15-49세 사이 여성 비율) (Unmet demand for contraceptive)(%)	22.7	노란색
25세 이상 여성의 남성대비 평균 교육 년 수 비율 (ratio, male)	101.7	녹색
여성 노동 참가율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 male)	88.7	녹색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중 (%)	43.6	녹색
남성과의 임금 격차 (%, 남성임금 대비)	13.4	주황색
SDG 6 (물과 위생)		
물 접근성(Access to improved water) (%)	100	녹색
위생설비 접근성(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	99.3	녹색
취수율 (freshwater withdrawal) (%)	1.5	녹색
수입 지하수 감소 (m ³ / 년 / 인당) (Imported groundwater depletion) (m ³ /year/capita)	8	노란색
SDG 7 (에너지)		
전기 접근율 (%)	100	녹색
비고형 연료(non-solid fuels) 접근율 (%)	100	녹색
연료 및 전기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MtCO ₂ /TWh)	0.2	녹색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	49.9	녹색
SDG 8 (경제성장/일자리)		
조정된 성장률 (adjusted growth rate) (%)	n/a	-
5-14세 사이의 아동 노동 (%)	0	녹색
은행, 여타 금융 기관, 또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계좌를 보유한 성인(15세 이상) 비율	100	녹색
인구 대비 고용율 (%)	75.5	녹색
니트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청년 (%)	9.1	녹색
SDG 9 (인프라/산업화)		
인터넷 사용율 (%)	90.6	녹색
이동 브로드밴드 구독율 (100명당)	122.1	녹색
전반적인 인프라의 질 (1~7)	5.5	녹색
로지스틱스 성과 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 (1~5)	4.2	녹색
QS 세계대학순위, 상위 3개 대학의 평균 점수 (0-100)	71.6	녹색
과학 및 기술 저널에 등재된 논문 수 (인당)	2	녹색

R&D 지출 (GDP 대비 %)	3.2	녹색
R&D 연구인력 (고용인구 천명당)	14.3	녹색
발명자 거주 국가의 PCT에 따라 신청 된 특허 출원율 (백만명당)	64.7	녹색
SDG 10 (불평등해소)		
지니 계수 (0-100)	27.3	녹색
팔마 율(Palma ratio)	1	녹색
PISA 사회정의 지수 (0-10)	6.5	녹색
SDG 11 (도시)		
도시 미세먼지 농도 (PM2.5 in urban areas) ($\mu\text{g}/\text{m}^3$)	6.1	녹색
상수도율 (improved water source, piped) (%)	100	녹색
가처분 소득 내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 (mean, %)	29	주황색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전자 폐기물 (kg/capita)	22.2	빨간색
폐수 처리 (%)	93.2	녹색
생산 기반 SO ₂ 배출 (kg/capita)	3.7	녹색
순 수입 SO ₂ 배출 (kg/capita)	19	빨간색
반응성 질소 생성 발자국 (kg/capita)	41.6	주황색
수입된 반응성 질소 순배출 (kg/capita)	169.3	빨간색
재활용되지 않는 도시 고형폐기물 (MSW in kg/명/년x재활용율)	1.1	노란색
SDG 13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인 이산화탄소 배출 (tCO ₂ /capita)	4.6	빨간색
기술 조정된(technology-adjusted) 수입 CO ₂ 배출 (tCO ₂ /capita)	1	빨간색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0	녹색
바이오 매스의 배출을 제외한 모든 비 도로 에너지의 유효 탄소 배출량 (€/tCO ₂)	43.8	주황색
SDG 14 (해양자원)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보호 해역 비율 (Mean area, protected in marine sites important to biodiversity, %)	57.6	녹색
해양건강성 지수 (OHI - 생물다양성) (0-100)	94.7	녹색
해양건강성 지수 (OHI - 수질) (0-100)	63.5	주황색
해양건강성 지수 (OHI - 어업) (0-100)	63.8	주황색
EEZ에 의해 고갈된 어장 (Fish stocks overexploited or collapsed by EEZ) (%)	n/a	-
SDG 15 (육상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육지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 (%)	58.2	녹색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담수 지역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 (%)	61.9	녹색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0-1)	1	녹색
산림 면적의 연간 변화 (Annual change in forest area) (%)	10.7	빨간색
수입 된 생물 다양성 영향 (백만명 당 사라진 종)	0.5	빨간색
SDG 16 (평화로운 사회/제도)		
살인사건 (10만명당)	0.9	녹색
수감 인구 (10만명당)	55	녹색
안전한 야간 보행 (%)	75	노란색
정부효율성 (1-7)	5.1	녹색
재산권 (1-7)	6.2	녹색
출생 신고율(Registered birth) (%)	100	녹색
부패 체감 지수 (0-100)	88	녹색
노예 점수 (Slavery score) (0-100)	100	녹색
주요 현대식 무기 수출 (1990년 고정 미화, 십만명 당 백만불)	171.1	빨간색
SDG 17 (이행수단/글로벌 파트너십)		
보건 및 교육 지출 (GDP 대비 %)	19.6	녹색
고소득 국가 및 모든 OECD DAC 국가 대상: 공적 개발 원조를 포함한 국제 양허성 예산 (GNI 대비 %)	1.41	녹색
모든 국가 대상: 조세 수입 (GDP 대비 %)	n/a	-
조세 피난 점수 (최고0-5최악)	0	녹색
금융비밀점수 (최고0-100최악)	36	녹색

출처: Sachs et al. (2017)

참고문헌

- 권 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2016.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석호, 기현지, 김태균, 박영실, 이영미, 정혜진, 홍석철 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중호, 강상인, 최선미.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세종: 환경부
- 김철희. 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2016 봄. pp. 81-125
- 박정호, 정소윤, 김은주.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윤유리. 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 과정 검토 II”.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주OECD대표부. 2016a.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OECD 역할 논의” OECD 회의결과. 파리: 주OECD대표부
- 주OECD대표부. 2016b.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워크숍 결과” OECD 회의결과. 파리: 주OECD대표부
- 주OECD대표부. 2017.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사례 및 시사점”정책 포커스. 파리: 주OECD대표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2016-정책 일관성을 위한 새로운 틀”. 서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Government of Sweden, 2016a, “Government appoints delegation for Sweden’s implementation of 2030 Agenda” Press release, 17 March 2016, available at <http://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6/03/government-appoints-delegation-for-swedens-implementation-of-2030-agenda/> (접속일: 2018. 4. 12)

Government of Sweden, 2016b, “Joint statement by High-Level Group in support of implementation of 2030 Agenda” Press release, 21 April 2016, available at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6/04/joint-statement-by-high-level-group-in-support-of-implementation-of-2030-agenda/> (접속일: 2018. 5. 20)

Government of Sweden, 2017, “Sweden and the 2030 Agenda — Report to the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7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of Sweden

Halonon, M., Persson, Å., Sepponen, S., Siebert, C. K., Bröckl, M., Vaahtera, A., ... Isokangas, A. 2017, “Sustainable Development Action - the Nordic Way: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dic Cooperation”. Nordisk Ministerråd, Copenhagen

OECD, 2016a, “OECD Survey on Planning and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First results and key issues”, prepared for the 35th meeting of Senior Officials from Centers of Government of the OECD”.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6b, “Workshop on SDG Implementation: Early Experience of Selected OECD Countries with a Focus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3 May 2016, OECD Headquarters, Paris, France

OECD, 2017a,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7b, “Sweden Policy Brief: Increasing the government’s capacity to achiev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Better Policies Series,

February 2017, available at <http://www.oecd.org/policy-briefs/sweden-increasing-policy-coherence-for-sustainable-development.pdf> (접속일: 2018. 5. 25)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Durand-Delacre, D. and Teksoz, K. 2016. “SDG Index and Dashboards – Global Report”.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Durand-Delacre, D. and Teksoz, K. 2017.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Weitz, N., Å. Persson, M. Nilsson, and S. Tenggre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Sweden: Insights on Setting a National Agenda.” Working Paper 2015-10. Sweden: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 available at <http://www.sei-international.org/mediamanager/documents/Publications/SEI-WP-2015-10-SDG-Sweden.pdf> (접속일: 2018. 5. 10)

WRI. 2016. “Universality, Integration, an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arly SDG Implementation in selected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available at https://www.wri.org/sites/default/files/Universality_Integration_and_Policy_Coherence_for_Sustainable_Development_Early_SDG_Implementation_in_Selected_OECD_Countries.pdf (접속일: 2018. 4. 10)

연구자료

ODA연구 2018-05-149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